

# 둥~둥~둥~ “나무 아미타불”

## 전국염불만일회 제6차 염불정진대회 미항사에서 열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한 여름 태양도 울고 갈 뜨거운 아미타불 염불소리에 해남 땅끝마을 담바산이 들썩였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25~27일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에서 300여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 회원들은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됨임을 자부하는 불자들의 힘차고 신나고 맛있는 ‘나무 아미타불’ 염불 소리를 따라갔다.

2002년 제5차 염불정진대회가 열렸던 미항사를 다시 찾은 전국염불만일회는 7월 25일 미항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입제식을 봉행했다.

안동일 회장은 입제식에서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念)하며 마음속에 모시는 것으로 송불(送佛)과는 다르다. 부처님을 생각하며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부처님을 닦아가려는 실천을 하자”며 “남녀노소, 신앙의 경력, 지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불자들의 상생, 소통, 만남의 장인 동시에 깨달음과 화합의 한마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강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미항사는 200년 전 초의 선사의 의현 장로가 미타만일기도를 발원한 곳으로 아미타불의 가피를 입은 곳”이라며 염불행자들을 반겼다.

입제식에 이어 ‘나무 아미타불’ 1만송 염불은 곧바로 이어졌다. 북과 목탁이 신심을 북돋으며 민명나는 염불정진 한마당이 펼쳐졌다. 엄중하고 정적인 염불에서 탈피해 ‘나무 아미타불’ 염불과 함께 상생과 소통, 화합이 시작됐다. 염불에 장단과 강악이 들어가고 박수를 치거나, 몸을 흔들거나, 절을 하기도 하는 염불정진은 한편의 장엄한 공연이었다. ‘나무 아미타불’ 1만송 염불은 7차례 나눠 매 회 80여 분간 진행됐다. 힘들거나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도반들과 함께하는 염불정진은 시간가는 줄 모른다.

염불정진대회에는 염불만 있는



염불행자들이 ‘나무 아미타불’ 1만 송 염불을 하고 있는 모습.

제12차 염불대회 이틀째인 7월 26일 새벽, 미항사 대웅전에서 사리탑 전까지 행선염불이 진행됐다.



것이 아니었다. 염불선행 발표, 행선염불, 촛불의식, 호마전도의식을 비롯해 국내 정상급 출연진들로 구성된 다도(茶道) 퍼포먼스, 바라춤, 사물영남농악, 찬불가 및 천고·천수복 공연, 전 참가자가 어우러진 회향 대동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둘째 날 대웅전에서 미항사 사리탑전까지 담바산의 새벽을 깨우는 행선염불은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켰다. 참가자들은 행선염불과 철야정진이 정진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염불만일회 이상우 회장은 “여름 휴가철 율령정진 끝에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나선 회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인연에 감사한다”며 “염불행자로서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며 신심과 마음가짐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부지런히 예배 공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염불

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으로 여러 도반들과 고성일념(高聲一念)으로 하면 정도에 앉은 듯 깊은 환희심이 생긴다. 앞으로 짧은 총부터 노년층까지 계층별로 염불수행이 이어져 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번 대회까지 12회 모두 빠짐없이 참여한 이천 영원사 이재인 어른은 90세의 연세에도 철야정진까지 참석하는 신심을 보여줘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재인 어른은 초록 조끼에 찍힌 12개의 참가확인 도장을 자랑스럽게 보이며 “살아오면서 2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 늘 부처님을 염하면서 동등동급 세상을 살면 된다”며 “2025년 회향하는 날까지 참가를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는 젊은 이들이 많이 참가해 염불수행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염불대회는 지난 11년 동

안 전국 염불성지인 유명사찰을 찾아 염불을 하는 ‘성지대회’의 가피력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스스로 염불정진을 다짐한다는 ‘염불정진대회’로 탈바꿈하며 언제 어디서나 한결 같이 한마음으로 수행정진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전국염불만일회는 신라 경덕왕 17년(758)에 발원 화상이 염불만일회를 개설한 것을 효시로 역사적으로는 6차 염불결사운동 단체다. 전국염불만일회는 1998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12번째 대회를 개최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염불수행은 지극한 신심만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의 가르침이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 손짓 한 번에 부처님 자비 담아요

## 조계사 원심회 청각장애인과 봉사자 길상사 수련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짓과 눈빛이 오가는 곳이 있다.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과 더불어 깨달음을 추구하는 원심회원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그곳.

조계사 장애인포교회인 원심회(회장 김장경) 청각장애인과 봉사자 30여 명이 7월 25~26일 남원 길상사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다. 본격적인 휴가를 맞아 제각기 나만을 위한 휴식시간을 찾아 떠나는 때에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봉사자들로 채워졌다. 수화로 짧은 대화만이 가능한 수준의 봉사자들이 대부분임에도 교감과 소통이 이뤄지는 그곳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캠프는 조계사를 출발해 지리산 뱀사골 숲길 탐방, 합양 서암정사 답사, 길상사 둘러보기, 마음나누기, 108배, 숲속 걷기 등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신행을 도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수련회는 아주 사소한 대화에도 수화통역이 그림자같이 따라야 했기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예상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자 여기를 보세요(두손을 흔든다)”라며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주의 집중시키는 데도 청각장애인들 사이사이에서 봉사자들이 감각으로



지리산 뱀사골 숲길 탐방에 나선 원심회원들을 위해 원심회 영재면 봉사부회장이 수화통역을 하고 있다.

뜻을 전해야 한다. 특히 이번 하계수련회에는 통역 봉사자가 부족해 원심회 임재면 봉사부회장이 행사의 총 통역을 담당했다. 20여 분 정도 수화통역을 해도 어깨가 아프고 많이 지친다는 통역을 맡 부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풍족 같은 땀을 흘리며 친절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임재면 부회장은 “종교를 떠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원심회에 와서 모두가 마음이 편해져서 돌아 가면 좋겠다”며 성글한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원심회 수련회가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연출된 것은 여러 봉사자들과 청각장애인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너와 내가 아닌 함께이기 때문이 가능했다.

원심회 지도법사 소임을 맡은 지2개월 남짓인 고경 스님(조계사 사

회차장)은 아직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마디가 아는 수화의 전부다. 스님도 아직 원심회원들과는 어색한 사이지만 몸으로 부딪히며 교감하기 위해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하는 열정을 보였다.

마음나누기 시간에 고경 스님이 “남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많이 아쉬워 기초수화를 배우아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원심회 모범회원인 김금자 어르신은 “스님 수화 배우세요”라며 해맑은 표정으로 스님과 깊은 대화를 간접히 원하는 듯 손짓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한다. 김 어르신의 수화가 끝나기도 전에 주변 청각장애인들이 일제히 고경 스님에게 청방기를 청하듯 간곡히 수화로 마음을 전한다. 스님은 이에 “앞으로 마음의 교감을 시도하고 기초 수화도 배우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는 처음 참가하는 봉사자와 청각장애인들이 예상보다 많았다. 서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대화는 시끄러울 정도였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으로 교류하는 이들은 이미 천이통(天耳通)에도 달한 수행자들이었다. 이상언 기자

### 신행계시판

●**간화선 집중수행**=서울 상도선원은 8월 9~16일 대법당에서 안국선원 수불 스님의 지도로 간화선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8월 5일 저녁 7시 30분 대법당에서 간화선 집중수행을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법회에서 가행정진과 응맹정진을 위한 마음다짐 및 동기부여를 위해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의 특별법문이 열린다. (02)815-3391

●**사마타-위빠사나 여름집중수행**=명상선원 오솔길은 8월 7~16

일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사마타-위빠사나’ 여름집중수행을 실시한다. 평등 스님이 교재 <숫타니파타>(전재성 역주, 한국팔리성전협회)로 지도한다. 수행은 대부분 아나빠나사띠 좌선수행으로 진행되며, 수행점검을 위해 하루 한 차례 스님과 개인 인터뷰를 할 수 있다. 1일 보시금은 1만5000원. (043)833-7789

●**단기출가학교**=평창 월정사는 9월 23일~10월 22일 단기출가학교를 실시한다. 단기출가기간 중

안 참가자는 삭발염의를 하고 행사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8월 25일까지 접수받으며, 수행비는 60만원이다. (033)339-6616

●**어린이를 위한 명상 위빠사나**=‘고연가 위빠사나’를 닦는 담마코리아는 8월 23일 오전 9시 경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명상’ 위빠사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선착순 40명 접수 받는다. (054)536-9820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신구의 삼업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을 바꾸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 “자비명상 지도자” 모집

# 慈悲無敵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마가스님의 안내로 진행되는 붓다의 리더쉽 “자비명상 지도자”로 초대합니다.

화가 많고 급하신 분! 수행이 잘 안되시는 분!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공개강좌 : 9월 9일(수요일) 오후 1시  
장 소 :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교육 기간 : 9월 9일부터 8주간(매주 수요일 오후 1~4시, 30시간)  
집중 교육 : 11월 중 3박4일 집중훈련(30시간)  
보강 교육 : 월 1회 10회(40시간 / 중앙대 내마음 바로보기 참관)  
총 교육 시간 : 100시간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내외  
수 강 료 : 200만원(1년 과정)

문의 : 0411622-1190 (천안 만일사) / cafe.daum.net/jurira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부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